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즈는 2007년의 인물로 자신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평범한 이용자들인 '당신(You)'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만든 일등공신은 웹 2.0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다. 웹 2.0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인터넷 환경과는 달리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생산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말하며 블로그, UCC 지식 검색 등은 참여·공유·개방이란 웹 2.0 문화가 창출해낸 최근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웹 2.0의 문화는 누구나 참여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보다 더 방대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역효과도 만만치 않으며 때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최근의 가수 '나훈아'의 사건을 보라. 인터넷으로 유포되던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파장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가 개인적인 것이거나 또는 연예잡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좁고 어떤 경우는 웃어넘기는 해프닝으로 취급할 수 있었지만 잘못된 정보의 대상이 불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거나, 이것이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에 의한 것이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중대해져야 할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종욱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웹 2.0문화와 정보의 수준

3월 12일자 현대불교의 'e-세상에 넘치는 인터넷 불교정보' 기사는 e-세상에 넘치는 인터넷 불교정보 대한 상세한 현황을 기획 취재하였고 이는 불교전문정보의 부족, 불교관련 네티즌의 활동 미비에 따른 자체적인 콘텐츠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적시한 바가 있다. 웹 2.0의 문화는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고 자체적으로 콘텐츠 정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인터넷 불교정보에 대한 대책으로 포털사이트에 항의하거나 또는 백서를 만드는 것 등은 현 문화코드에 맞지 않는 단편적인 대책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 정도(正道)인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과제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올바른 정보란 정확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수준에 맞는 정보를 의미한다. 모든 정보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불교 정보라 하더라도 불자와 비불자를 위한 정보, 전문가와 일반인을 위한 정보, 어른과 아이를 위한 정보 등 그 활용용도와 높이에 맞게 가공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불교정보의 구축은 전문가에 의한 특정 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웹 2.0의 문화

에 맞게, 위키피디아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모든 불자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올바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종단과 교계 언론이 캠페인을 벌이고 비영리 기관이면서 모든 전문가를 갖추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주체가 된다면 손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관련 네티즌의 활동미비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영역이다. 메신저, 블로그, 등으로 대별되는 요즘은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웹 2.0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기에 불교계는 활동적인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포교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하고, 이들이 활동하며 지켜야 할 양질의 불교 정보가 있을 때 불자 네티즌들이 불교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콘텐츠 정화에 나설 것이라 믿는다.

최근 <시크릿>이라는 책이 화제이다. 이 책은 서양인이 저술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우리 내면의 숨겨진 힘, 즉 자성불(自性佛)을 믿고 간절히 관(觀)하며 행(行)을 바꾸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비밀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불교사회에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종합불교회관 건립 필요

한국불교 1번지에 '공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무기관과 교계단체들이 협소한 사무 공간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나마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1년 혹은 2년 마다 이삿짐 싸기가 바쁘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조계사 교육관에 자리잡고 있던 종단협의회 등 5개 단체가 퇴거를 요청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조계종 전법회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전법회관이 완공된다고 하여 불교계 단체들의 공간부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조계종 총무원과 박물관이 연결해 있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조계타운'은 누가 뭐래도 한국불교의 1번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무기관과 각종 단체들이 사무 공간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는 것은 몹시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예산부족으로 공간 확보가 용이치 않고 각종 단체들은 자립도가 낮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사명감을 지키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교계 단체들의 사무 공간 부족은 대사회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든 시대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하면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불교가 보다 현대화되고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누가 나서든 대규모 불교종합회관 불사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군산시 화재진압 매뉴얼에 '박수'

송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화재에 대비한 훈련과 대응 매뉴얼이 지역 현실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후약방문 격일지라도 더 많은 문화재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매뉴얼 작성과 훈련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 군산 소방서가 최근 지역 사찰들을 순회하며 소방 훈련을 벌이고 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화재 진압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수로 칭찬하고 또 격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시의 경우 관할구역 안의 사찰들에 소방차 진입이 용이해 매뉴얼 작성이 비교적 쉽고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를 것이다. 군산시의 매뉴얼 작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화재진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체에 각 지방의 소방당국은 지역별로 작성된 문화재의 화재진압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완벽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화재 화재진압 시범훈련도 갖고 모범 소방서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역 소방서가 문화재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면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물론 도굴이나 도난으로부터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아직 화재진압에 대한 훈련과 매뉴얼 작성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사찰이 나서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 생엔 당신 안 만날래요”

다시 결혼합니다

“난 다음 생에도 당신과 다시 결혼할래.”
뭐, 뭐라고?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김씨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남편이 식사하면서 꺼낸 말이었었다. 남편은 말을 이었다. “생각해 보니 육신 평생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그리고 보니 당신 같은 사람도 없는 것을. 괜히 화만 내고 잘해준 것도 없고,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그렇지, 정말 날 힘들게 했지! 김씨는 가슴에서 울분이 울라 치밀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다시 만나자고? 부부로 또?

김씨는 지난 세월이 생각났다. 지내지 못했다. 6남매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시동생 시누들을 다 시집장가 보냈다. 시부모님도 이십년 넘게 모셨다. 그러는 동안 그나마 좀 있던 재산을 남편이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간 것이다. 사업한다고 날리더니 몇 년 후 재가한다고 애원을 했다. 할 수 없이 어렵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더니 또 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없었다. 그 후에도 무슨 무슨 사업한다고 돈을 해내라고 끊임없이 졸라대었다. 도대체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⑤⑤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난 만나기 싫다

김씨가 짚에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못 살고 헤어졌을 것이다. 스님이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인연이기에 그 업을 녹여야 한다는 말씀에 조복했었다. 끊임없이 관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다. 남편 속에 계신 부처님을 불렀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것이 기도 주제였다. 심어 낸 을 그렇게 하다 보니 미운 마음도 많이 없어지고 남편도 전과 달리 성실하게 살려고 바뀌기도 하였다.

“아무리 그랬더라도 막상 그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부부로 만나자고 하니깐 그만 기가 막히

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하기 싫는데 말이예요” 아니 인생에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다음 생에 또? “그렇다고 난 싫어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굳이 가슴에 못 박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남편의 말에 빈말이라도 뭐라고 대답해 주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다. 김씨가 말이 없자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김씨는 짚에 가는 길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 만약 다음 생에 또 이 사람 만나 또 그런 고생을 해야 된다면 하고 생각하니 너무 서럽고 자신이 불쌍했다. 스님에게 갔다. “스님, 남편은 좋겠지요. 그동안 제가 참고 녹이고 기도하고 관하고, 아휴, 자기 가족들 다 받아주고, 빛 다 갖

가면서, 자기가 좋겠지요. 그러나 전 뭐니까, 제일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김씨는 “술취하스네, 전 다음 생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된 건가요?” 하고 물었다.

고정됨 없는 도리

스님은 “다음 생에 만나고 안 만나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나도 어떻게 만나느냐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사님을 다시 만난다면 왜 똑같은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님은 김씨의 지극한 기도정진과 노력으로 업이 많이 녹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고정됨이 없는데 여자도 만 태어나네요. 다음 생에는 보살님이 남자가 되고 거사님이 여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또 다음에는 훨씬 좋은 도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거사님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김씨는 점차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고정됨이 없다. 내가 인생에 노력하고 있으니 업이 녹았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뭐가 되어 만났지 누가 안담. 왜 지금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보니 이 마음공부를 알게 된 것이 한 없이 감사했다. 안 그랬으면 남편을 원망만 하며 지나다가 다음 생에도 이대로 그 차원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천만다행하 업을 녹이는 마음정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서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서 벌여를 떠올린다. “인과나 업보나 불이지 마라. 기도돼 있는 건 하나도 없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총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전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찌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명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전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전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망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분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